

뒤늦은 눈물로 민심 달래질까

세월호 정국 위기 탈출 여부 인적쇄신 결과가 첫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민심을 수습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맞은 최대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통일대박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기업 개혁, 규제혁신 등 집권 2년차 핵심과제들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하지만, 이 과제가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이날 담화가 민심으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전 국정지지도가 대선득표율을 크게 웃도는 60% 이상에서 선전하던 박근혜정부는 예기치 못한 참사의 대처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는 4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눈물까지 쏟으며 24분간의 담화를 읽어내 려갔다.

특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향후 처방전을 제시했다. “사 고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표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 냈다.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적 개혁안으로는 관피아(관료+마 피아)의 척결, 공직자 선발제도의 획기적 개선 약속 등이 담겼다.

또 구난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민안전권을 지키는 데 실패한 안전행정부 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축소 등을 단행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 겠다고 밝혀 상당폭의 정부 조직개편을 예 고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출범 당시 ‘안전’을 모토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의 이름을 바꾸기며 재탄생시킨 부처이 고,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전임 정부시절 폐지됐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어서 쉽지 않 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황간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요구들을 담화에 담아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은 물론 안전행부의 사실상 해체를 통해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대통령의 의 지가 담화에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은 대변인은 “세 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 책임에 대해 언 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진정한 위기 탈출 여부는 향후 담화에 이 을 인적쇄신의 결과가 달렸다고 말한다. 누구를 정부에 포진시키느냐에 따라 박 대 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여부를 가 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추락한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의 면모를 일신함으 로써 새출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 구다. 또 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소신 있 는 인사들의 파격적 중용이 필요하다는 여 론이 적지않다.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이들에게 나라 전체를 맡아보여야 하는 막중 한 과제, 즉 국가개조를 맡겨야 한다는 것 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남재준·김기춘·김장수 빠진 인적쇄신은 아무 의미 없어”

새정치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9일 세 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인적 쇄신과 관련 해 “인적쇄신의 정점에는 남재준 국정원 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같이 말하면서 “이 세 분이 포함되지 않는 인적 쇄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악’ 소리를 낼 수 있 을 정도로 대통령이 인적 쇄신과 개각을

하지 않으면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 민의 분노를 절대 가실 수 없다”며 “박 대 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무능한 분 들은 정부에서 나가줘야 한다는 것을 (국 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 임에 대해서 박 의원은 “개혁적 인사로서 내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이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총리가 돼야 한 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구조 얘기는 왜 없냐”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진도군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내각 인적쇄신 등 후속조치가 표심 향배 결정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19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초반부터 이번 지방선 거의 판을 뒤흔들며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 여야의 승패를 결정지울 것으로 관측 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책임

론이 부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선 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의 전패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선거 판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건은 유권자들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

이면서 대국민담화 이후 ‘실천’에서 담화 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표출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여야는 대국민 담화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지방선거 영향을 주목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솔직하고 진솔한 담화였다. 총격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했다”고 평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사고는 있었지만 진단이 미흡

하고 처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방문 후인 21일을 기점으로 내각 과 청와대에 걸쳐 어떤 인적쇄신 방안을 내놓느냐가 민심의 향배를 결정짓는 계 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 지명 등 인적쇄신 은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상 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표심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직개편·공직 혁신 등 5개 분야 27개로 세분화

정부 후속조치 마련 착수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 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 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

령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 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 을 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에 담 긴 개혁방안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 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 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 27개 후속 조치로 세분화했다. 정부조직개편 분야

에는 해경 해체를 비롯해 안행부와 해수 부 개편, 정부조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 정안 국회 제출 등이 후속조치로 들어갔 고,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는 공직유관기 관 공무원 임명 배제 등 민관유착 근절방 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별 방식 개혁방안 등이 담겼다. 회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재선환수

나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의 후속조치가 포함됐고, 국가안전처 신 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 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 들어 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등도 추진하기 로 했다. /연합뉴스

5호남예술제 새색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14. 6.10(화) ~ 6.13(금)

개요 | 작품 공모 |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5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색 그리기축제 담당자 알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협찬 **SAMSUNG 삼성생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